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3월 7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보건정책팀장 조상열 ☎440-2711 • 담당자 홍윤숙 ☎440-27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도 주치병원(인천세종병원), 보건지소에 심전도 측정기 기탁 - 인천세종병원, 덕적보건지소에 심전도계 3대 기탁 ... 주민 심장질환 조기 발견, 예방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일 ‘1섬 1주치 병원’ 민·관협력 도서 지역 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 인천세종병원이 옹진군 덕적보건지소에 심전도 측정기 3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중에서는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급만성질환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만성질환자 중 심장병이나 당뇨병, 폐질환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알려지면서 평소 꾸준한 심장질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병원선이 운영 중이나 진료과목이 한정(내과, 치과, 한의과)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등 고령에 따른 심장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화된 인천세종병원은 심전도 측정기를 덕적보건지소에 기탁하기로 하고, 심전도계로 측정된 검사결과를 판독 서비스하기로 했다. 시와 병원은 덕적주민들의 만성 심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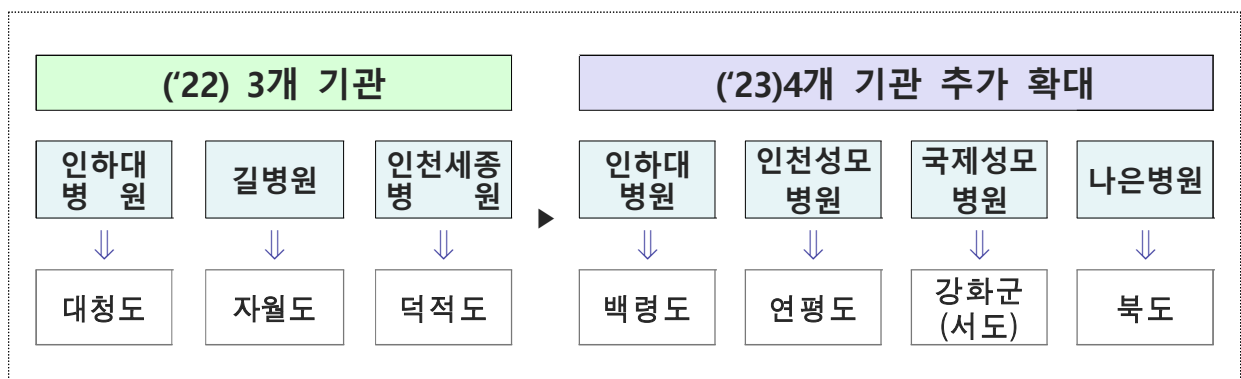
특히, 인천세종병원은 덕적도의 주치병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달 말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으로 ‘1섬 1주치 병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육지가 연결되지 않은 7개면 도서지역과 관내 6개 의료기관(인하대 섬2곳 담당)을 연계해 주민들의 내과, 심장 및 재활, 정형외과 등 과목별 질환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기탁식과 관련해 “인천세종병원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감사 드린다” 며,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사업이 행사성 순회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참고사항

- (1섬 1주치(主治)병원) 3개 병원('22.) → 7개 병원('23.) 확대

※ 기 협약기관 : 인하대병원(대청도), 길병원(자월도), 인천세종병원(덕적도)



<관련 사진>

